- 2013년 -

공무 해외 연수 보고서

성주군의회

목 차

Ⅰ. 해외연수 개요
- ▢ 연수목적, 기간
- ▢ 연수국 및 주요도시
- ▢ 연수자 명단
- ▢ 연수일정 및 주요 내용

Ⅱ. 연수국 소개
- ▢ 우즈베키스탄 현황, 역사, 의회제도, 대통령 중심제 등

Ⅲ. 주요 방문 도시
- ▢ 타슈켄트
  - 아미르 티무르 공원 및 박물관
  - 압둘카심세이흐 사원
  - 침간산, 차르박호수, 고려인마을 및 김병화 박물관
  - 국회의사당 등
- ▢ 부하라
  - 시토라이마호사 여름궁전
  - 이스마일 샤마니 영묘, 차슈마이유브(욥의샘물) 등
- ▢ 사마르칸트
  - 레기스탄 광장
  - 울르그벡 천문대 등

Ⅳ. 우즈베키스탄의 풍경

Ⅴ. 연수후기

Ⅵ. 맺음말

Ⅰ.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의 전문능력을 향상 시키고

○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의회제도 및 문화관광 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3. 8. 30~9. 4(4박6일)

☐ 연 수 국 : 우즈베키스탄

☐ 주요 방문 도시

○ 타슈켄트, ○ 부하라, ○ 사마르칸트

☐ 연수자 명단

일련번호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한 글	영 문	
1	성주군의회	의 장	도 정 태	DO JUNG TAE	
2	〃	부의장	김 영 래	KIM YEONG RAE	
3	〃	의 원	백 철 현	BAEK CHUL HYUN	
4	〃	〃	이 성 재	LEE SEONG JAE	
5	〃	〃	김 명 석	KIM MOUING SUK	
6	〃	〃	배 명 호	BAE MYUNG HO	
7	〃	〃	이 수 경	LEE SU GYONG	
8	〃	〃	이 화 숙	LEE HWA SOOK	

▢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주 요 일 정	식 사
1일 8/30 금	인천 타슈켄트	OZ573 전용차량	17:30 21:00	인천국제공항 출발 타슈켄트공항 도착 HOTEL : 시티 팔레스	석:기내식
2일 8/31 토	타슈켄트	전용차량	전일	* 아미르 티무르 공원 및 박물관 * 압둘카심세이흐 사원 * 국회의사당 견학 중식 * 지진기념탑 * 바자르 견학 석식 HOTEL : 시티 팔레스	조:호텔식 중:한 식 석:한 식
3일 9/1 일	타슈켄트 부하라	HY1327 전용차량	전일	-공항으로 이동, 타슈켄트 출발, 부하라 도착 * 시토라이마호사 여름궁전 * 차슈마아유브(욥의 샘물) * 이스마일 샤마니 영묘 견학 중식(호텔) * 아르크성 견학 석식 HOTEL : 그랜드 부하라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특별식
4일 9/2 월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열차 Sharq 전용차량 고속열차 Afrosiyob	08:05 11:10 전일 17:00 19:30	부하라 출발 사마르칸트 도착 후 * 레기스탄 광장 견학 중식 * 아프로시압 박물관 * 비비하눔 모스크 * 울르그벡 천문대 * 샤히진다 묘 열차이용 사마르칸트 출발 타슈켄트 도착 후 석식 HOTEL : 시티 팔레스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5일 9/3 화	타슈켄트 침간산 타슈켄트	전용차량 OZ574	전일 22:20	천산산맥의 끝자락 침간산(3,309미터의 만년설산)으로 이동 * 리프트 탑승 중식 * 차르박 호수 견학 * 고려인 마을 및 김 병화 박물관 방문 석식 후 이동 타슈켄트 출발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특별식
6일 9/4 수	인천		08:50	인천공항 도착 후 해산	조:기내식

Ⅱ. 연수국 소개

□ 우즈베키스탄 현황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면적 : 44만 7,400㎢(한반도의 2배 : 스웨덴과 유사한 크기)

○ 인구 : 2천 8백만명【우즈베크인 71.4%, 러시아인 6.3%, 타지크인 4.7%, 카자크인 3.9%, 타타르인 2.4%, 고려인 0.8%(약 20만), 유태인 0.3%, 연인구증가율 : 3.6%】

○ 종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그리스정교 9%, 기타3%

○ 언어 : 우즈벡어(터키계 언어)를 공용어로 하나, 러시아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됨.

○ 수도 : 타슈켄트(인구 250만명)

○ 행정부 : 대통령제(임기 7년)

○ 입법부 : 양원제 - 의장 : Khalilov Erkin Khamdamovich

○ 정당제도 : 복수정당제- People's Democratic Party(구 공산당), 'Erk'(자유), Democratic Party 등,

○ 행정조직 : 12개 지방 및 1개 자치공화국(Karakalpakstan)

○ 주요도시 : 사마르칸트(37만명), 나망간(33만명), 안디잔 (30만명), 부하라(23만명), 페르가나(20만명)

○ 교 육 :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 우리나라학교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교육에 해당하는 1~11학년까지 교육을 받고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됨.
- 8학년이나 9학년때 계속 학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취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을 가게 됨.

○ 기후 :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

- 여름 최고기온 : 42°C, 평균기온 25-35°C
- 겨울 최저기온 : -10°C, 평균기온 2.8°C
- 강 우 량 : 봄 30-50%, 여름 1-6%
  가을 4-44%, 겨울 : 25-40%

○ 화폐단위 : 숨(Sum)

□ 우즈베키스탄 역사

○ 우즈베키스탄은 4,000년 전에 청동기문화가 출현하였으며, 이때 인공 관개에 의한 농경이 보급되었다. 3,000년 전에 박트리아, 소그디아나의 일부였고, BC 6세기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영토였다.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대왕에게 정복되고 그레코-박트리아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8세기에 아랍의 침공을 받은 이후 이슬람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코칸트, 부하라 등지가 종교의 중심지나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성하였다.

○ 8세기 중엽 고구려 출신 장군 고선지(高仙芝)가 이끄는 당·위구르연합과 투르크동맹군 간에 무력충돌이 있었다. 11세기에는 셀주크트루크제국의 일부였고,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 차카타이한국(汗國)에 이어 16세기 초까지 티무르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14세기 이후 우즈베칸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에 의해 부족들이 통합되면서 민족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16세기 이후 부하라, 히바 및 코칸트한국이 건국되고 여러 부족의 정착화가 진행되었다.

○ 19세기에 들어와서 제정러시아가 영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막고 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하였다. 러시아는 1868년에 부하라

한국, 1873년에 히바한국, 1876년에 코칸트한국을 병합하였다. 1917년 12월 공산화되고 1918년 4월 투르크스탄자치공화국이 되었다. 1920년 부하라와 히바지역이 독립인민공화국이 되었으나, 1924년 투르크멘공화국에 병합되었다. 1924년 10월 우즈베크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1925년 5월 소련의 일원이 되었다.

○ 1929년 타지키스탄이 분리되었으며, 1936년 러시아로부터 카라칼파키야자치공화국이 편입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소련의 개방과 개혁 정책으로 경제난관과 환경문제가 노출되고, 민족주의운동과 이슬람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1990년 주권을 선포하고, 1991년 9월 완전한 자치독립국이 되었으며, 독립국가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 의 회 제 도

○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원의 총 의석 수는 100명으로 상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4개 지방(12개 주, 1개 자치공화국, 타슈켄트지) 의회에서 각 6명씩 총 84명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 16명을 임명하여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상원의 주요 권한은 헌법·최고 재판관 선거권, 정보기관(SNS) 부장·검찰총장 임명 승인권,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사절·중앙은행 총재 임면권 등이다. 상원의원의 민족 구성을 보면 우즈베크인이 89명, 그밖에 카라칼파크인, 러시아인, 투르크멘인, 카자흐인, 우크라이나인, 고려인(박베라, 여 71세) 등이다.

○ 우즈베키스탄 하원의 총 의석 수는 150명으로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35명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며, 환경 분야 과학자 및 교수 15명을 임명하는 바, 각 주에서 1명씩 임명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하원의 주요 권한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국제조약 비준권, 총리·각료의 임명 승인권 등이다.

○ 하원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자유민주당 53석, 인민민주당 32석, 국가재건민주당 31석, 정의사회민주당 19석 등의 분포를 보인다. 그밖에 환경분야전문가(직능대표)들이 15석을 차지하고 있다.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은 1991년 12월 취임한 이래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3월과 2000년 1월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며, 2002년 1월에는 '대통령 임기 7년 연장' 국민투표 지지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왔다. 2007년 12월 23일에는 득표율 88.1%로 7년 임기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강력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카리모프 대통령은 사마르칸트(Samarqand) 출신으로서 권력기관에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Toshkent) 양대 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양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세력이 미약한 상태다. 단원제에서 상원(100석)과 하원(120석)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전환(2004년 12월)하였으나, 총선 결과(2005년 1월), 대부분

의 야당·무소속 의원이 친여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3년 4월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 '전임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등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2009년 12월 27일 총선 결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압승하여 여권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Ⅲ. 주요방문 도시

□ 타슈켄트

○ 타슈켄트는 우즈베크어로 '돌(Tosh)의 도시(Kent)'라는 뜻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도시로서 교육과 학술, 예술, 과학, 공업, 교통의 중심지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 현재 인구 211만명(1997년 현재)의 타슈켄트는 치르치크강(Chirchiq River)부근, 목화와 과실나무가 잘 자라는 오아시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중심이면서 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중앙아시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 또한, 우즈벡과학대학 등 19개의 대학과 20개의 도서관과 같은 수많은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타슈켄트가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뜻밖에도 자연 재해 때문이었다. 1966년 4월 26일 새벽 5시 23분, 타슈켄트를 덮친 진도 8의 엄청난 지진이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구 소련은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집중적으로 복구해 3년이 지난 뒤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 그 이후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 근대도시가 되었다

□ 아미르 티무르 공원 및 박물관

칭기즈 칸 이후의 세계정복을 꿈꿨던 위대한 아무르티무르(1336-1405)의 동상이 서 있는 광장으로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이전에는 칼막스의 동상이 서 있었고, 그 이전에는 스탈린, 레닌, 장군 카우흐만이 각각의 위세를 나타냈었다.

아무르티무르 공원 옆엔 아무르티무르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 압둘카심세이흐 사원

16세기에 건축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명한 신학교중 하나로 그 지위를 굳혔다.

이 사원은 신학교와 학생들의 기숙사, 이슬람 예배 장소인 모스크, 첨탑인 미나렛과 하스크 이맘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코란 중의 하나가 보관 되어있어 이슬람 신자들이 성지 순례의 코스로 생각하기도 한다.

□ 바자르(재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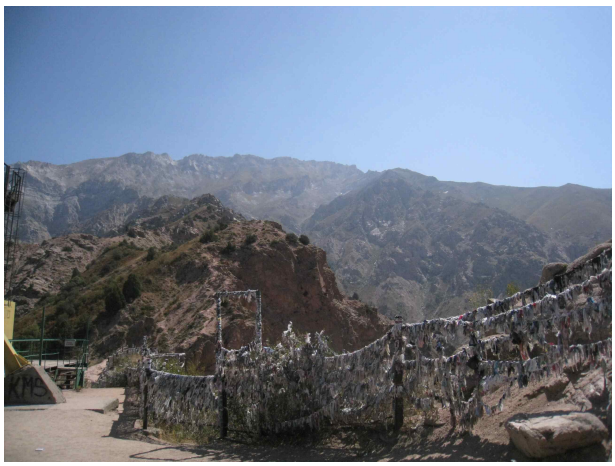
바자르란 시장을 뜻한다. 과일, 채소, 빵, 향신료, 우유, 치즈, 샐러드, 주스, 고기 등의 음식과 음식 재료뿐 아니라 옷, 카펫, 가구 등 모든 물건들을 판매한다.

실크로드 시대의 옛 정취가 있고 사람들의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에 비해 이곳은 중앙을 중심으로 광장처럼 넓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붕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 우리 성주시장 현대화 사업시 고려해 볼 사항 이다.

□ 침간산



타슈켄트 시내에서 2시간 남짓 한 거리의 침간산(3,309m)은 톈샨산맥 줄기로, 침간(Chimgan)이란 말은 카자흐스 탄어로 '푸른 곳'이란 뜻이다.

주변 사막지대에 비해 산이 가장 푸르게 보였기 때문이다.

자연을 잘 활용한 로프웨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어 성주의 로프웨이 사업시 참고할 만한 지역이다.

□ 차르박 호수

침간산 중턱인 해발 1,600m에 위치하며,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을 받아 저장하는 인공 담수호로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중요한 곳이며, 또한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성주호개발사업과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조성사업시 참고할 지역이다.

□ 고려인마을 및 김병화 박물관

김병화 집단 농장은 195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구소련에 세워진 수많은 집단 농장 가운데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했다.

원래 이름은 폴리아르나야 즈베즈다 꼴호즈였는데, 1974년 김병화가 세상을 떠난 뒤 그를 기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그의 탄생 100주년인 2005년 집단 농장에 동상과 박물관을 세웠다.

고려인 김병화는 동포들의 자랑이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었으나 현재의 김병화 농장의 고려인은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고 대부분 우즈백인들이며, 김병화 농장이라는 이름도 박물관으로만 남아 있을 뿐 현재의 농장이름은 전혀 다른 우즈벡어로 바뀐 상태라 조금을 섭섭한 기분이다.

박물관의 유지는 성금으로 유지되어 우리일행도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고려인이 상세한 설명과 안내 해주었다.

김병화 농장 주위에는 끝도 보이지 않은 잘 정비된 광활한 농토가 있다. 성주군이 농업개발 사업 장소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지역이다.

☐ 부하라

부하라 (Bukhara)는 중앙아시아에서 고대의 이슬람문화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고대 도시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대부분의 기념물은 도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흔히 이곳을 우즈베키스탄의 보물이라고 부르며 역사적으로 사연이 많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관광

객을 반기고 있다. 특히 이곳의 가장 유명 유적은 칼란 미나레트(Kalyan Minaret)로 고대 부하라의 상징과도 같은 유적이다. 징기스칸(Genghis Khan)이 이 도시를 파괴하였을 때에도 칼란 미나레트(Kalyan Minaret)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곳만은 남겨 놓았다고 할 정도이다.

□ 시토라이마호사 여름궁전

시토라이마호사궁전은 에미르궁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별처럼 빛나는 달의 궁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름다운 겉모습은 물론 내부로 들어가면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고, 지역의 특산공예물품도 공예가들이 직접 만들고 전시 판매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지에도 가장 한국적인 독특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였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 이스마일샤마니 영묘

부하라가 자랑하는 수많은 유적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것은 이스마일 샤마니왕의 영묘이다. 이 영묘는 이스마일 사마니의 부친이 죽자 가족 납골당으로써 이슬람 통치 탑의

안으로 들어서면 나선형 계단이 있다. 탑 주변은 한줄기의 푸른 타일로 장식해서 신비감을 더해준다.

1127년 만들어진 것으로 햇볕에 말린 흙벽돌을 달걀흰자와 낙타 젖을 반죽해 쌓았다고 한다. 위에 불을 밝히면 멀리서도 불빛이 보여 사막의 등대 구실을 했다.
벽돌무늬와 조각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부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서 보존과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우리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시 적극 참고할 만한 사례다.

□ 차슈마아유브

성서에 등장하는 '욥의 샘'으로 욥이 지팡이를 세웠더니 이곳에서 물이 솟았다고 한다. 둥근 원추형 지붕의 3개중에 1개는 채광창을 갖춘 이 묘는 칭기즈칸때 파괴된 것을 티무르가 복구했다.

지금은 건물 안쪽에서 신비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다. 이 성스러운 샘은 둥근 지붕의 아름다운 건물 속에 보존되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물을 마신다. 우리군에도 전설을 간직한 샘물이 있다. 활용방안이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 아르크(방주) 성(Arc castle)

아크성은 부카라의 왕이 살던 곳이다. 성벽 높이가 16~20m에 이르는 아르크성이다.

2,400년 전에 처음 성이 만들어진 이래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거듭하다. 18세기에 현재 모습을 갖췄다. 부하라 왕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780m 길이의 흙벽돌 성벽에 둘러싸인 4헥타르(ha) 넓이의 성이다.

안에는 왕이 기도하던 사원과 사신들을 맞이하던 광장, 감옥 등이 있고, 부하라 유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성곽은 7세기에 축성된 것을 몇 번 개축한 것으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성의 구조물이 기울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복구비용 때문에 보수가 잘 안되고, 건물기둥과 나무처마 등도 노후가 되어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다. 우리의 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칼리안 미나레뜨(The Kalyan Minaret)

미나레트는 기도할 시간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세운 높은 탑이다. 칼란이란 페르시아어로 '크다'는 뜻이고 미나레트는 '첨탑'이라는 말이다.

높이 46m의 칼란 미나레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18~19세기 부하라한국시대에는 죄인들을 이 탑의 꼭대기에서 내던져 처형했다고 해서 '죽음의 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징기스칸이 침공하였을 때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유적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다

□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는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아시아 최고(最古)의 도시인 동시에 중앙아시아

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왔다. 현재 사마르칸트는 37만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사마르칸트 주변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교역의 중심지이고, 도시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고대 유적과 유물이 가득한 아름다움과 위엄이 느껴지는 멋진 견학지이기도 하다.

□ 레기스탄 광장

'레기'는 모래, '스탄'은 광장의 뜻으로 레기스탄은 '모래 광장'을 뜻한다. 북쪽을 흐르는 운하 주변에 있는 모래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마르칸트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알현식, 사열식, 각종 모임 등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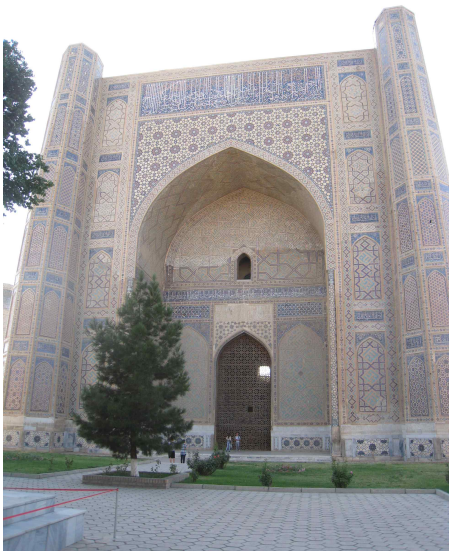
티무르 때는 대규모 시장이 있었고 울루그베그 때는 마드라사(Madrasa, 이슬람교 교육기관)가 세워졌다.

현재와 같은 모습은 샤이바니 왕조 때 갖춰졌다. 중앙에 티라카리 마드라사, 오른쪽에 셰르도르 마드라사, 왼쪽에 울루그베그 마드라사가 세워져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50숨짜리 지폐에 이곳 광장이 그려져 있으며 국가적인 대규모 경축행사나 명절, 기념일 행사가 열린다. 겨울을 제외하고 매주 목, 토, 일요일 밤이면 '소리와 빛의 제전'이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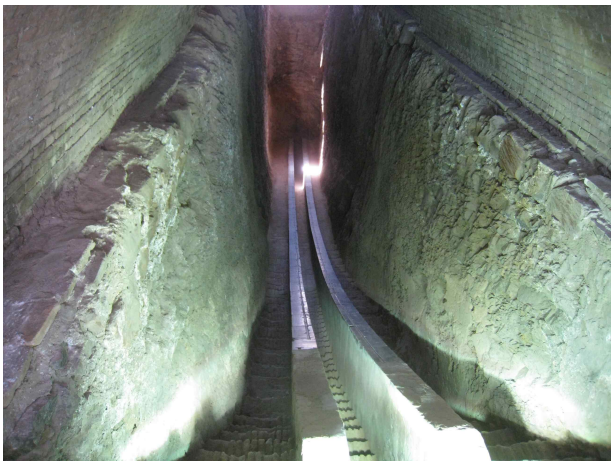
□ 비비하눔 모스크

1399년에서 1404년 사이에 지어진 비비하님 모스크는 레기스탄 광장



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로 손꼽히는 건축물이다.
비비하님 모스크를 건축한 티무르왕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들 중에서 비비하님을 가장 총애했었다고 한다.
이곳은 티무르 왕이 비비하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건설한 엄청난 규모의 사원이다.

□ 울르그백 천문대



40년간 통치했던 티무르의 손자 울르크베크의 명령으로 지어진 천문대로 1429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천문대라 불리었으며, 천문대 건설을 통해 천문학이 괄목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첨성대를 연상케 한다

□ 샤히진다 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언덕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과 티무르 왕조의 묘지로 8세기 아랍군의 침입 이후부터 이슬람교도들의 무덤이 되었고, 14~15세기 티무르 왕조의 묘가 11기 있다.

샤히 진다는 '살아있는 왕'을 뜻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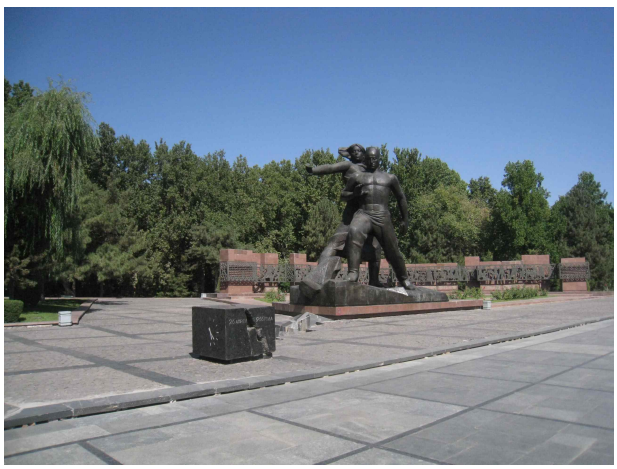
무함마드의 사촌 쿠삼이븐압바스는 이곳까지 와서 이슬람교를 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교도들에 의해 목이 잘렸지만 자신의 목을 껴안고 깊은 우물 바닥으로 들어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다는 설이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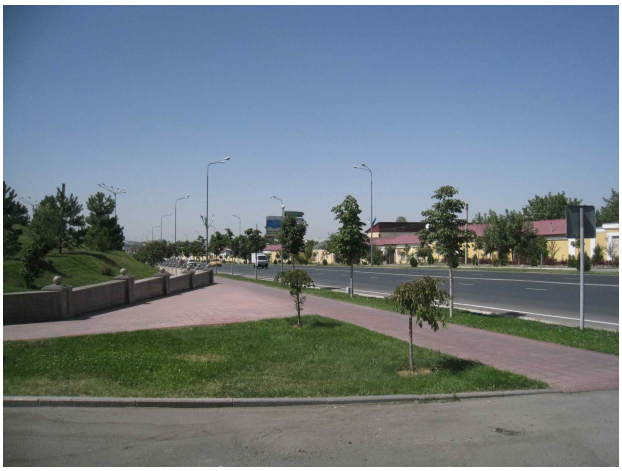
고려인과 대화 및 아리랑 노래 함께 열창

고려인 마켓의 진열 상품들

친절한 어린이 형재들



'66년 진도 8.0 지진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공원



잘 정돈된 사마르칸트의 도로와 인도

삼성의 홍보탑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관광지의 공예가

공원에서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더 넓은 평원

전통의상과 춤을 관광에 활용하는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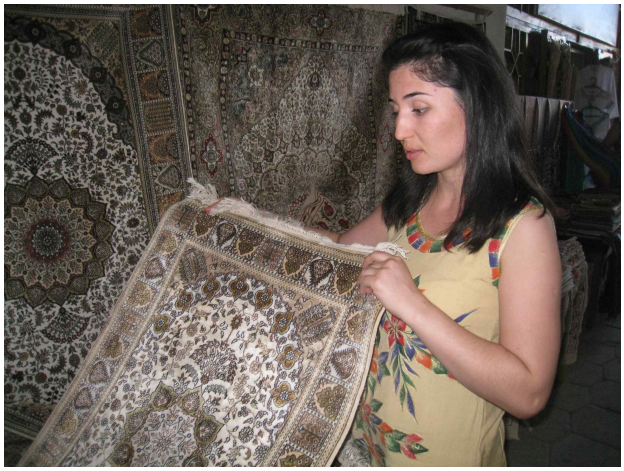
도로를 활보하는 마티즈 차량

고려인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반찬 상점

2013년에 만든 실크로드 우호 협력비

들판과 도로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가축들

2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



카펫 파는 여인

Ⅳ. 연수후기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2,866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자 교통 요충지로써 천연가스·원유·금·몰리브덴·텅스텐·우라늄 등 수많은 천연자원을 가졌으며, 남한의 4.5배에 달하는 국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특히 면화를(세계 5위 생산국, 세계 2위 수출국) 중심으로 하는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현재는 통신과 관광 분야가 유망산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우리의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 부지런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긴밀히 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한 연수국를 다녀오면서 매번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것이다. 국토는 좁고 천연자원은 전무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 뿐인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과 근면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점을 더욱 발전·계승시켜 광활한 대지를 그냥 놀리는 것은 우리 국민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성주군은 좁은 땅덩이에서 연간 조수익 4,000억을 올리고 있는 기술력과 연간 강우량이 300mm밖에 되지 않아 물 부족인하여 면화, 밀 등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품종을 주로 생산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초 등을 생산하여 우리군과 직거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 문화를 살펴 볼 때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전통 회교문화가 복원되고 터키, 이란 등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확대로 현

대 중앙아시아 회교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민요와 전통춤(페르가나 춤과 호레즘 춤)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봄축제, 튤립축제, 면화 추수감사 축제, 종교적 명절 등을 기념하며 명절에는 '차반'이라 불리는 전통의상을 입고 노래와 춤을 향유한다.

□ 우리나라와 달리 손님의 술잔에 첨잔하는 것이 예의이며, "원샷"은 상대방과 술을 안 마신다는 의미로 결례에 해당한다고 한다. 남녀 내외풍습의 잔재로 여성과의 인사는 가볍게 하고 베일을 쓴 여성과의 신체접촉은 삼가야 한다.

□ 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양고기 요리를 즐기며 대표적 음식인 플롭(pilav: 볶음밥의 일종)으로 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만들어 접대한다. 이슬람의 보편적 요리인 '샤쉴릭', '카봅(케밥)', '라그만(고기국수)'도 즐겨먹는 음식이다.

□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며, 장례식은 소련 시절 서구식으로 많이 변하였으나 최근 회교전통에 따른 장례로 복원되는 추세라고 한다.

□ 사용하는 언어는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러시아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주민들이 영어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어 영어를 사용하면 대부분 통용되는 것 같다.

□ 우즈백인 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낙천적이며 잘 생겼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탤런트 김00모씨와 같은 미인이 밭에서 김을 맨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식생활인지 체질 때문인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8등신의 몸을 유지하고 있으나 30-40대가 넘으면 비만인 체형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이가 자신들의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들어 보인다. 식생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학력이 높은 등 지위가 상당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중학생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관광객인 우리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싸요, 태권도, 빨리 빨리” 정도의 단어는 알고 구사하였다.

또한 고려인 들은 코리안 마켓 등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거리의 카페에서 만난 고려인은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일행과 함께 아리랑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서로 친분을 쌓았으며, 자신들의 휴일일정에 같이 합류하자고 하는 등 친절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는데 한국과 고려인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으며 애국심이 솟아났다.

□ 우즈베키스탄 화폐단위는 숨(Sum)이며, 1달러에 2,200숨 정도로 교환되며 우리나라 원화대비 반 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물가도 우리나라 대비 반 정도이다.

□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낮아지는 등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대부분의 우즈벡인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더욱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유경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 면세점에서 구비한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며, 보드카 등 술 종류

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출국장의 공항 면세점은 자국의 화폐인 숨(Sum)화가 통용되지 않고 달러만 이용활수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

□ 광활한 국토덕분인지 도로는 꽤 잘 건설되어 있으며, 도심에는 교통을 정리·단속하는 경찰들이 많고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리되며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는 것 같다.

그리고 치안상태가 굉장히 안전하여 밤에도 거리를 마음대로 거닐어도 안전한 나라이다

□ 우즈벡의 거리에는 마티즈, 다마스, 스파크 등의 대우 및 쉐보레 브랜드 차량이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의 대우와 우즈베키스탄의 합작으로 자동차 생산공장을 현지에 만들어 직접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삼 세계화 현지화의 위력과 교류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차량들이 우리의 기술과 우리가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즈벡인들은 자신들 나라의 것이며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연수시 교통편은 주로 전용버스를 이용하였으며 15인승 정도의 소형 차량이 많다. 이러한 버스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국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러시아 등을 통해 수송되며 우즈벡까지 도착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또한 철도는 내륙국가여 옛 시절부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일반기차는 우리나라 완행열차와 비슷한 열차로 경제사정 때문인지 창문도 고장 나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 상태였으며, 고속열차는 우리나라의 KTX처럼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이러한 고속열차

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출입국 심사가 굉장히 엄격하다. 테러에 대비하기위서인지 비행기 1대 탑승자에 대한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2시간 걸렸다.

대한민국, 미국, 서유럽 등에 30분도 안 걸린 것을 생각하면 심사인원의 증원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외화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였다. 입국 심사시 작성하였던 심사서 2장중 1장을 출국시까지 지참하여야 하고, 신고한 모든 외화에 대하여 출국시 다시 심사하며, 우리 원화도 심사하여 입국시 신고되지 않은 돈에 대하여는 강제로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 달러화 뿐 아니라 원화에 대하여도 입국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벡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용하여 관광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민속의상과 민속춤 등을 관광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산품인 악기, 칼, 카펫, 벌꿀, 상황버섯, 보드카 술 등의 상품도 관광에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개발하고 보전하여 관광에 활용하였으면 한다.

Ⅳ. 맺음말

6일 동안의 여정으로 다녀온 우즈베키스탄의 연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평원을 바라보며 농작물을 이러한 넓은 곳에서 우리도 한번 경작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
잘 보존된 문화유산과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더 잘 보존하고 관광지와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하였으면 했던 생각,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조국애를 느꼈던 생각
바쁜 것이 없이 항상 여유롭고 즐겁게 사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조금 더 여유롭게 천천히 살아보고픈 생각들이 스쳐간다

특히,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모든 것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처럼 이번 연수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는 산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이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비록 짧고 바쁜 일정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고 왔지만 금번의 연수는 우리들에게 글로벌시대에 지역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기존의 틀을 넘어 한 단계 높은 시각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번 연수의 성과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앞으로의 의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비록 짧은 기간 내에 큰 변화와 많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연수경험이 향후 의

정활동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